

완주군,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차별없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7개 안전 상징·의결

완주군은 18일 군청 4층 회의실에서 2017년 제1차 완주군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2017년도 생활보장사업계획에 관한 보고를 시작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 조사계획, 자활지원계획, 가족관계 해체 등 기초생활보장 적정성 18건, 긴급복지 지원 적정성 27건, 지원연장 60건 등 총 7개

의 안전을 상징·의결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연조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 수급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수급자의 근로능력, 자활욕구, 건강상태, 가구특성등을 면밀히 파악해 수급자격과 급여지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

2017년 자활지원사업은 조건부수급자, 차상위 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일

을 통한 빈곤탈출을 유도하는 등 효율적인 자활사업을 추진토록 계획을 수립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기초수급자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부정수급자를 최소화하고, 자활지원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수급자의 자립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고 도움이 필요한 군민이 한 사람이라도 소외받지 않도록 현미경복지 추진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현대차 전주공장, 헌혈 통한 생명나눔 실천

16년 간 매년 실시 참여인원 5천명 넘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이석동)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17년째 헌혈 통한 생명나눔 실천 이어오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함께 지난 10일과 18일 두 차례 사내 3개 식당 앞에서 점심시간을 활용해 사람의 헌혈캠페인을 전개한 결과 10일 하루동안만도 직원 62명

과 성분 헌혈을 합해 30~200회 이상씩 참여해 헌혈유공 금장과 은장 등을 수여 받은 직원들도 있으며, 주변 사람들조차 모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혈을 실천해 오고 있는 직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헌혈을 통한 소중한 생명 나눔에 보다 많은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람의 헌혈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사람의 헌혈 캠페인 파트너 기관인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 따르면 최근 헌혈 참여 인구 급감에 따라 전북지역 혈액 수급 사정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며, 긴급수혈 등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위해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군, 특화작목 생산시설 지원

14억 6천만원 투입... 이달 말까지 신청 접수

무주군이 14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고품질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생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분야는 천마와 사과, 인삼, 비닐하우스 등의 생산시설과 저온저장고, 수확상자 등 저장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들로, 1월 31일까지 해당 읍·면 주민자치센터(산업담당)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무주군은 수확상자를 작목반과 연구회에 직접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저장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포장거레 예방과 생산자 단체 활성화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가물과 폭염·폭우 등 이상

기후로 인해 수확을 포기하거나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경과 적적관수,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 농업소득과 김영종 원예특작담당은 “천마와 사과뿐 아니라 노후된 시설하우스의 장기성 필름(비닐)을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시설하우스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것”이라며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들과 작목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을 키우기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특별리포트

장수군, 하수도정비사업 추진

장수군은 국비 300억 원을 확보한 예산으로 2017년 하수도정비사업 증설 및 하수도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하수관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오연지구마을하수도정비사업으로 이어져 진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조기에 사업추진을 목표로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3월부터 장수공공하수처리시설 800톤, 장계공공하수처리시설 1,300톤 증설사업 및 오연지구마을하수도정비(신기마을외7개마을)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과 마을하수도정비사업 조기추진으로 수질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주민만족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담당마을 찾아 ‘희망나누기’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등 방문 의견 청취

무주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무원들이 담당 마을을 찾아 주민들의 생활을 살피고 있으며 특히 무의탁독거노인과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가정위탁세대를 방문해 고충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듣고 관련 부서와 연결해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간기관들과 연계해 명절맞이 후원 물품들이 전달되도록 하고 있다.

무주군 관계자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안부를 나누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며 생활을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특히 혼자 사시거나 형편

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겨울이지만 이웃이 있어 춥지 않고 명절이지만 이웃이 있어 외롭지 않다는 생각을 심어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무주군 공무원들의 담당마을 방문은 행정의 손길과 도움이 필요한 마을 곳곳의 사안들에 대해 주민들과 서로 의견을 나누는 현장행정의 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민 김 모 씨는 “마을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기다리고 반가워 하신다”며 “공무원들도 반갑게 찾아와서 말벗도 돼드리고 하는 것을 보면 흐뭇하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경진원, 장수서 사업 설명회 가져

직원 30여명 대상 실시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홍응용)에서는 18일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업 설명회는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 등 융자지원과 일자리 종합센터 운영을 통한 일자리 지원 및 온라인상거래 지원을 비롯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창업 및 중소기업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이번 사업 설명회는 소상공인(적거래 농산물 판매 농가) 및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인의 접점이 많은 장수군청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이뤄져 경진원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장수군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들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최용득 장수군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소상공인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 신청하세요

진안군, 대상마을 신청 받아

진안군은 18일 지난해 처음 시행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에 대해 올해도 대상마을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공동급식 사업은 농촌의 부족한 일

손을 해결하고 여성 농업인의 근로여건을 개선 한다는 취지에서 공동급식 시설을 구비하고 20인 이상 급식이 가능한 각 마을에 조리원 인건비(160만원)와 부식비(80만원)를 지원함으로써 보람 찾는 농민 실현을 위한 삼락농정 핵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량은 총 12개소로 작년보다 1개소가 확대됐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사업량 범위 내에서 2월말까지 신청 및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원 조건에 맞는 마을에서 농번기 공동급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 신청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 소양면, 직원 대상 친절교육 실시

완주군 소양면(면장 정재운)은 지난 17일 면장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주민 중심의 방문·전화 민원응대 기법과 직원들간 친절과 불친절 사례 등을 공유하고 친절서비스 강화를 위한 토론을 거쳐 공직자 스스로 실천 의지를 결의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또한, 2016년 11월부터 주 1회 근무시간 전 친절다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내방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정재운 소양면장은 “주민 행복이 우선 실현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소통과 꾸준한 업무 연찬을 통해서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로 행정 신뢰성을 높이고 친절을 생활화하는데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재전진안군향우회,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전달

재전진안군향우회(회장 윤석정)가 18일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지역인재를 육성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어달라며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이날 윤석정 회장은 “우리 향우회 회원들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진안의 발전과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사랑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항로 이사장은 “국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임에도 우리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며 “여러분의 정성이 모여 진안을 발전시키는 큰 원동력이 된다.”고 말했다.

재전진안군향우회는 2013년부터 매년 기탁을 이어오며, 3,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지난해에는 ‘진안사랑 어울림마당’에서 진안 농특산물 직거래·먹거리 장터를 운영하는 등 진안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읍 주민자치위, 성금 기탁

18일 무주읍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이 무주군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성금 1백만 원을 기탁해왔다.

회장 2017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이날 군청을 방문했던 조용복 대표는 “살을 앞두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회원들이 마음을 모았다”며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들이 무주읍 전체로, 무주군 전체로 확산이 돼서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 따뜻하고 정감이 넘치는 무주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